

1930年代 小說과 女給

— 특히 玄民 俞鎮午의 作品을 中心으로 —

趙 鎮 基

| | |
|----------------------------|-----------------|
| <目 次> | |
| I. 序言—30年代의 不安과 身邊 體驗小說 | III. 女給小說과 그 性格 |
| II. 30年代 現實과 失業者 問題 | IV. 結 言 |

I. 序論—30年代의 不安과 身邊體驗 小說

30年代文學의 두드러진 特徵은 文學의 危機¹⁾로 認識되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그것은 1931년에 일어난 滿洲事變으로 日本의 植民地 擴張을 爲한 그들의 侵略行爲가 노골화되면서 韓國은 日帝의 侵略戰爭의 渦中에 휩싸이게 된다. 그 結果 많은 知識人들은 自嘲意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自嘲意識은 當代의 不安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얻어진 理智的 產物이 아니라 상당히 皮상적이며, 또한 막연한 不安氣分이었음²⁾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當代 知識人이 갖고 있는 對現實認識의 態度가 나약했음을 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나약한 對現實認識의 結果로서 많은 作家들이 現實과 直接 對決을 피하고 혼잡한 印象의 破片³⁾을 咀기에 급급하여 所謂 身邊體驗的 小說이 쓰여지게 된 것은 당연한 現象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作家의 態度에 對해 崔載瑞는 文壇危機의 打開策으로 作家의 투철한 信念을 強調하고 社會的 危機와 文學的 危機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 1) 白鐵 教授는 「思潮中心으로 본 1933年度의 文學界」란 글에서 〈……33年の 特殊한 政治的 文化的 不安事件은 直接 文學界에 作用해 왔으며 그것이 現代文藝思潮의 33年の 性格과 方向을 決定해 주고 있다〉고 했으며(思潮史. 現代篇, p. 192) 俞鎮午도 同一한 發言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李光洙, 朱耀翰, 李箕永 等도 文學의 危機를 是認하고 있다(白鐵, op. cit, p. 192 參照).
- 2) 拙稿: 韓國小說에 나타난 人間像, 文敎部報告論文, 1978. 5, p. 27.
- 3) 崔載瑞: 諷刺文學論, 崔載瑞評論集, 靑雲出版社, p. 188.

<2>嶺南語文學(第5輯)

社會的危機와文學的危機를 혼동하는理論을 우리는 흔히 본다. 社會的危機가文學的危機의 주요한原因이 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社會的危機가그대로文學的危機가 되는 것은 아니다. 社會的危機가文學的危機로 되려면 모든信念의 상실이意識化되어야 한다. 즉 사람의感情生活이 의지할만한 모든支柱가 붕괴하여無信念이 사람들의生活態度로 화할 때 비로서文學的危機는到來한다.⁴⁾

이러한 崔載瑞의主張과 때를 맞춰 崇萬植을 비롯한 一聯의 풍자적인 作品의 擡頭는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그러나 大部分의 作家들에게 있어서 30年代 現實批判의 姿勢는 弱화되고 作家의 生活周邊이나 最高적 趣向에 젖어 들거나, 아니면 抒情的 世界으로 方向轉換을 하게 되었다. 特히 初期에 同伴作家로 活動하던 李孝石의 경우 현저하게 그 作品傾向이 變貌를 가져왔으며 兪鎮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作家의 信念에 依한 轉身이라기 보다는 1931年과 1934年 二次에 걸쳐 KAPF系列에 對한 檢舉에 크게 영향받은 바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하여 兪鎮午의 作品도 方向轉換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비단 兪鎮午 한 사람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고 더욱 철저하게 KAPF에 加擔했던 李箕永, 金南天, 韓雪野 等의 경우도 同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崔載瑞는 그들의 作品에서 主題의 喪失을 지적하고 이들의 作品을 「後日譚의 文學」⁵⁾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런 點에서 본다면 兪鎮午의 경우도 後日譚의 文學의 性格을 지닌다. 이와 같은 陳述은 林和에게서도 볼 수 있으니

最近 朝鮮小說에 있어 作家의 精神能力的 衰退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基本的인 經路는 作家들이 文學을 世界觀으로부터 分離한데서 出發하여 市井을 遍歷하는데서 促進되었다. 市井小說에서 作家들은 完全히 世界觀이란 것과 訣別하였다. 그들은 作家의 눈으로 市井을 보고 市井을 그린 것이 아니라, 市井人이 되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리었다. 다시 말하면 市井이란 題材를 支配하는 대신 그들은 市井에게 征服된 것⁶⁾

이라고 規定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실상 兪鎮午의 一聯의 作品世界는 所謂 市井의 世界로 方向을 轉換

4) 崔載瑞: ibid. p. 187.

5) 「後日譚이란 말하자면 웬 알박이는 다 거두어 들인 담에 하는 두벌 秋收 乃至 이삭주이 程度의 文學이니……」하여 社會運動에서 市井의 스킷취적으로 方向轉換을 意味하는 文學을 지칭한다. 崔載瑞: 現代小說과 主題, 文章 通卷 6號, p. 153.

6) 林和: 生産小說論, 人文評論, 1940. 4月號, p. 9.

한 以後의 作品은 前期의 未熟한 社會參與의 傾向에서 進一步하였으며, 純粹한 藝術의 本質만을 追求해 보겠다는 現實逃避의 世界와는 달리 當時의 歷史的 背景을 充實히 反映해 보여주려는 姿勢를 보였으며, 混亂한 社會 속에 살아가는 고뇌에 찬 知識人의 모습을 正직하게 表現해 주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의 代表作으로 일컬어지는 「金講師와 T教授」(193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周知하다시피 「金講師와 T教授」는 當代 知識人이 어떻게 좌절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金萬弼>로 代表되는 當代 知識人이 自己 理想과 生活을 一致시킬 수 없는 時代的 狀況을 克明하게 提示함으로써 知識人의 受難과 悲劇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兪鎭午의 作品은 단순히 <後日譚의 文學>이니 <市井小說>이나 하여 가볍게 다룰 수 없으며, 女給의 文學⁷⁾이라 할 수 있는 一聯의 作品(어떤 夫妻, 痴情, 나비 等)은 30年代 知識人의 就職難과 生活苦에 對한 正직한 反應이라는 點에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II. 30年代 現實과 失業者 問題

30年代의 韓國社會는 失業者 洪水時代라 할 만큼 失業者問題는 個人問題의 次元을 넘어서 社會問題로 認識되었다. 그러므로 失業者란 問題는 그 理由를 여러 가지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日帝殖民政策의 差別政策과 無關하지 않음은 朝鮮日報의 <就職難과 優先權反對>⁸⁾라는 社說의 題

日帝時의 階層構造 (단위: 人數率)

| | 韓 國 人 | | 日 本 人 | |
|-----------|-------|-------|-------|-------|
| | 1930年 | 1940年 | 1930年 | 1940年 |
| 經 營 者 | 0.07 | 0.02 | 2.11 | 0.07 |
| 小 產 層 | 16.84 | 29.92 | 9.83 | 5.91 |
| 화 이 트 칼 라 | 0.63 | 1.97 | 14.62 | 20.75 |
| 技 能 工 | 8.79 | 6.54 | 13.02 | 12.95 |
| 未 詳 | 0.19 | 0.02 | 0.44 | 0.07 |
| 無 職 | 73.47 | 62.15 | 59.97 | 60.03 |

7) 本稿에서 女給文學 내지 女給小說이란 作中主人公을 女給(妓生, 술집酌婦, 다방테지 등을 包含)으로 하여 女給의 生活相을 다룬 作品을 概括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8) 朝鮮日報 1930年 12月 6日字 社說.

目만으로도 설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同社說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8,500名中에서 就職可能性이 있는 것이 20%, 就職이 全然 不可能한 것이 80%라고 밝혀주고 있다.⁹⁾ 이것은 韓國人과 日本人의 階層構造를 比較한 다음 表¹⁰⁾를 보면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人과 日本人 間에 상당한 階層의 差異를 보게 된다. 特히 30年代에 있어서 <화이트칼라>가 韓國人 0.63%에 比하여 日本人은 14.62%나 된다는 것은 앞의 朝鮮日報의 지적을 確認해주는 資料가 된다. 한편 失業者(無職)의 경우 1930년에 韓國人이 73.47%인데 比하여 日本人은 59.97%라는 點도 이를 確認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1930年代를 일컬어 知識人의 受難期 乃至는 失業者 洪水의 時代라는 表現은 조금도 誇張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時代 속에서 知識人의 自嘲가 터져나오는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가여운 인테리진차들아! 얼마나 로맨틱한 時節이라고 그대들은 지금 울고 있는가?……中路……그대들은 商品市場에 쏟아져 나온 산데미같은 商品을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이다. 「生産過多」 「商品堆積」 이렇지 그대들은 배운 文字를 중얼거릴 것이다. 「學問의 殿堂에서 쏟아져 나온 인테리, 우리들도 販賣市場에 쌓인 商品과 같고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인테리의 沒落과 失業者 洪水의 時代가 온 것이라고.¹¹⁾

이러한 時代的 狀況 속에서 30年代의 슬한 作品이 知識人의 失業과 貧困 問題를 다루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失業의 問題나 貧困問題가 作品의 題材로 나타난 것은 결코 30年代文學에만 局限된 現象은 아니지만 20年代의 그것이나 50年代의 그것과는 그 性格에 있어서 判異하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20年代의 作品에서 보여지는 貧困이나 無職은 東仁이나 田榮澤의 作品에서 보이는 것처럼 社會의 文脈과는 無關한 것이며 그것은 主人公의 無知나 無能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貧困은 휴머니티에 타락을 둔 것으로서 解決可能的 것이었다. 그리고 50年代 作品에 나타나는 失業이나 貧困은 人間의 영원한 宿命的 條件¹²⁾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反하여 30年代 小說에서 보여지는 失業, 特히 知識人

9) 朝鮮日報社：就職難과 優先權反對, 朝鮮日報名社說, 五百選, p. 302.

10) 金永謨：社會階層의 變化, 韓國現代社, 8卷, 新丘文化社, p. 287.

11) 玄東炎：인테리의 悲哀, 白鐵：思潮史, 現代篇 p. 198 再引用.

12) 千二斗：小說에 나타난 失業者問題, 世代, 1964年 1月號, p. 198.

의 失業은 어느 한 時期의 不幸한 社會現象¹³⁾으로 認識되고 그러한 失業問題를 通하여 當代社會의 構造的 矛盾을 提示하려는 作家意識의 一反映으로 把握할 수 있다는 點이다. 이처럼 30年代 作品에 있어서 失業者問題는 단순히 作者 個人的 身邊體驗의 世界가 아니라 當代的 社會文脈과 민착되어진 것으로 認識되어야 한다는 點을 지적해 둔다. 이러한 것은 千二斗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通해서도 分明하게 확인하게 된다.

失業者 이야기가 社會的 觀點 위에서 다루어지기 始作한 것은 KAPF 以後 1930 年代의 이른바 世態小說이라 불리우는 一連의 作品들에 있어서의 일인 것이다. 이 世態小說이란 意識으로 社會의 어두운 面을 組 위에 올려놓고 묘사한 作品들이므로 日帝治下의 이 나라의 암담한 風俗化가 과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물론 이러한 암담한 風俗畫를 그리는 背後에는 日帝의 가혹한 植民地政策에 對한 消極的인 反抗의 姿勢가 뒷받침되어 있고, 이러한 惡辣한 現實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서글픈 궁지와 이러한 社會條件 속에서 生計를 꾸려가지 못하는 自身的 無能力에 對한 自嘲의 무드가 基調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지적이 물론 30年代 失業者問題를 다룬 小說의 性格을 總體的으로 評價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妥當性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蔡萬植의 一連의 諷刺小說은 當代 失業者의 自嘲와 現實에 對한 辛辣한 批判精神의 것들이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現象은 兪鎮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知識人들이 職業戰線에서 밀려남으로 生活無能力者로 轉落하고 급기야 家庭을 가진 婦女子가 生活戰線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周知하다시피 1930年代의 韓國의 女性은 特別한 專門知識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學問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事務職에 일자리를 求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結果 가장 손쉽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인 <술집>이나 茶房의 女給(빠·걸)이나 <레지스터>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30年代 女給의 問題는 30年代 知識人의 失業問題와 同一한 線上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兪鎮午의 一連의 作品, 이를테면 「어떤夫妻」(1938), 「痴情」(1938), 「나비」(1939)는 20年代 女給의 性格과 特性을 가장 잘 反映한 作品이라고 하겠다.

13) 千二斗 : ibid, 198.

14) 千二斗 : ibid, 197.

Ⅲ. 女給 小說과 그 性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0年代 小說에 나타난 女給의 問題는 消費文學의 要素와는 상당히 異質的 바탕 위에서 쓰여진 것이다. 물론 韓國文學에 있어서 女給(妓生)이 登場하는 作品이 비단 30年代에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30年代의 作品은 前代의 그것이나 40年代 以後의 그것과는 현저한 異質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李光洙의 「無情」에서 <영채>는 妓生이며 <흙>의 경우 <선희>도 妓生이다. 그러나 이들은 嚴格한 意味에서 妓生의 面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封建의 倫理意識을 美化하기 위하여(영채), 혹은 勸善懲惡의 啓蒙意識을 보여 주기 위한 人物(선희)에 불과하다. 그러나 리얼리즘文學이 確立된 20年代에 있어서 東仁의 「눈을 겨우 뜰 때」(1923)에서는 妓生은 李朝時代의 妓女와 同一한 風流的 面貌를 強하게 풍겨준다. 그리고 玄鎭健의 경우 「墮落者」(1922)에서 <춘심>은 主人公 <나>를 유혹하고, 性病을 옮겨주고 끝내는 돈 많은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마는 俗惡한 人物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립은 훑긴 눈>(1924이나 <발>(192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比하여 30年代 作品에서는 그와는 극히 異質的이며, 실령 女給이 아니라 하드라도 男女結合의 motifs가 快樂追求로서가 아니라 窮乏한 生活의 打開策으로 종종 使用되고 있음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¹⁵⁾ 이를테면 玄鎭健의 「貞操와 藥價」(1929)나 金裕貞의 「산골 나그네」(1936) 등의 作品에서 어엿이 男便을 두고 男便의 病치료를 위해서 몸을 팔고(貞操와 藥價), 또는 병든 男便에게 따뜻한 옷가지를 장만해 주기 위하여 僞裝結婚도 감행하는 것(산골나그네)은 그들이 갖고있는 性倫理의 타락을 問題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道德律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生活苦에서 벗어나려는 보다 積極적 자세¹⁶⁾ 임을 忘却할 수 없다.

사실 30年代 小說에서 本格的인 女給 小說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金裕貞의 作品에서 자주 등장하는 <들병이> 이야기도 어떤 意味에서 女給의 性格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볼때 金裕貞의 作品,

15) 韓國小說에 있어서 男女結合의 motifs를 살펴보면 순수한 사랑에 의하여 結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生計를 爲한 하나의 方便으로 男女의 結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점은 稿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16) 拙稿: 金裕貞作品論攷, 嶺南語文學 第2輯, 1975. pp. 80~82 參照.

<안해>에서는 <들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쯤 한바탕 먹어 보기 위하여 들병이 生活을 企圖하고, 들병이에 얹혀서 가난을 면해보려고 자기 집의 술까지 훔쳐내는(술) 것이다.

이러한 作品을 통하여 결국은 30年代 韓國농촌의 窮乏相을 劇적으로 提示하려는 作家精神을 볼 수 있게된다.

그리고 <夜櫻>(1936)과 <따라지>(1937)에는 女給이 登場하고 있으나 역시 그 性格은 俗惡한 人物로서가 아니라 보다 母性愛가 強한 어머니로서, 가난하고 병든 한 男子의 아내로서 그려지고 있고(夜櫻), 또 가진 者에 對한 非人間的 行爲에 항거하는 女人(따라지)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忘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30年代 女給文學의 意味도 30年代의 知識人의 失職과 거기에서 오는 生活苦라는 側面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翁鎭午의 「어떤 夫妻」는 失業者가 된 男便(인환)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生計를 유지하기 爲하여 아내 <희경>이가 處女로 신분을 속이고 <J그릴>의 <레지스터>로 就職하게 한다. 그러나 실상 아내 <희경>은 自身의 身分을 속여가며 就職戰線, 그것도 레지스터로 일하는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男便의 바람에 따르는 良順한 아내로서 就職을 決心하게 된다.

『할 수 없지 않소. 취직은 해야겠구, 거짓말 좀 허거루.』

『그래두—』

희경은 찬성치 않는 듯이 머무적거린다.

『거리낄 거 뭐 있소. 누굴 속여서 어떤다는 것두 아니겠구, 대체 저쪽 조건이 우습지. 미혼여자래야만 될 이유가 무엇이야?』

『글쎄, 그래두.』

희경은 여전히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모양이다.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구먼두.』¹⁷⁾

이처럼 失業者인 男便은 아내의 就職을 은근히 期待하고 있지만 自己의 無能에 對하여 自嘲意識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상 30年代 失業者 男便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就職 以外에 다른 方途는 있을 수 없다. 憑虛의 「貧妻」(1920)의 主人公 <男便>은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옷

17) 翁鎭午: 어떤 夫妻, 韓國短篇文學全集(Ⅱ), 白水社刊, p. 45(以下 作品引用은 上記 作品集을 使用한 것임).

가지를 저당질하여 生計를 이어가고, 마침내 自身の 無能力을 僞裝하기 위해 <돈 많은 男便 = 난봉군>, <돈 없는 男便 = 善良한 人物>이란 圖式的 思考¹⁸⁾에 의하여 問題의 核心을 흐려 놓음으로 問題의 解決이 아닌 問題를 회피하는 것 보다, 아내의 就職으로 現實을 解決하려는 態度야 말로 보다 적극적 生活態度라 할 수 있다.

인환은 담배를 피워 들고 후— 내뿜었다. 생각하면 사내자식이 제손으로 계집자식을 털어먹이지 못하고 계집을 취직전선에 내세운다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구히 회경에게 대달려 먹고 살려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취직이 결정될 때까지의 임시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에는 결백을 더 부러야 하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¹⁹⁾

이와 같은 갈등을 지닌 채 아내의 就職에 期待해야 하는 當代 知識人の 苦惱는 그의 作品 到處에 散在해 있다. 이러한 知識人の 苦惱는 金裕貞의 作品에서는 보다 역설적으로 表現되어 <들병이>의 生活을 한없이 부러워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못사람의 품으로 옮겨 안기며 예속거리는 들병이가 말은 천하다 할망정 힘 안드리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게게 흘리고 덤벼드는 못놈을 이 손 저 손으로 맘대로 후물르니 그 호강이 바히 고귀하다 할지라.²⁰⁾

이러한 逆說的 表現은 30年代에 있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生活苦 안에서 아내 <회경>은 <J그릴>에 레지스터가 되어 <리에상>으로 불려지고 한 家庭의 生計를 떠맡지만 그와 함께 많은 男子의 유혹을 받으며 점차 洋裝美人이 되고 세련되어 가는데 比하여, 男便 人환의 苦惱는 그와 反對로 커지며 더욱 초라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환은 화가 치받았다. 여편네를 돈벌이 보내놓고 자기는 집에서 어딘에 기저귀나 빨아대는 신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도 어딘에는 똥·오줌 합쳐 일곱번이나 기저귀를 더럽혔다. 서투른 솜씨로 기저귀 빠는 꼴을 보다 못해 안방에 들어 있는 완이 어머니가 두번이나 대신 빨아 주었다.²¹⁾

18) 拙稿：小説에 나타난 知識人の 樣相(I), 嶺南語文學 第3輯, 1976. p. 120.

19) 俞鎮午：op, cit, p. 45.

20) 金裕貞：술, 短篇集 등백꽃, p. 243.

21) 俞鎮午：어떤 夫妻, p. 49.

이러한 轉到된 生活 속서서 인환은 自己의 無能과 아내에 對한 不安으로 속을 태운다. 그러나 아내 <희경>은 언제나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男便에게 報告한다. 이러한 生活은 正常的인 것은 아니지만 失職한 男便을 둔 아내로서 最善의 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경>의 行動은 女給으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使命感이 앞서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誠實한 아내에 對해 男便은 강한 自意識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도 아내를 理解하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피에테의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때와 경우를 따라서는 자기도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는 글에 붉은 [출을 그어] 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0年代에 있어서 知識人의 失職(業)은 生活苦라는 問題와 함께 知識人이 어떻게 精神的으로 수처해 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社會的 意味를 強하게 提示해 주었다는 點을 忘却할 수 없다.

한편 「어떤 夫妻」의 續篇인 「痴情」(1938)은 <리에상>을 두고 <S>와 <M>의 끈질긴 유혹과 男便 인환의 苦惱의 記錄이다. 그것은 前篇의 갖고 있는 性格과 別다른 面이 보이지 않는다. 問題는 前篇에서보다 한결 <리에상>의 行動이 조금 대담해졌고 마네져 <M>의 積極적 유혹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리에상>에 對한 유혹이 심하고, 그러한 사연을 男便에게 報告하는 아내의 마음이 고달게 생각되면서 <피에테>의 말을 연상하고 더욱 不安해지는 人환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

인환은 여전히 저절저글 속이 끓는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희경의 외모와 말솜씨가 세련되어 가는 것은 그에게도 즐거웠고 또 그로서는 희경의 숨김없는 마음을 밟았으므로 좀처럼 희경이 발을 헛디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날마다 들려주는 여러 사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²²⁾

이처럼 人환은 아내에 對한 믿음과 함께 疲터로 일어나는 不安에 사뭇 疑妻症患者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 <희경>은 <J그릴> 종업원 위원회에서 二次會를 하고 子正이 넘어 슬취한 모습으로 돌아와 늦어진 理由를 설명하지만 男便은 끝내 理性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行事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 <희경>은 남편의 그런 行動에 反抗하기는 커녕 「이 이가 미쳤나」 하고 돌아누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夫妻」에서 「痴情」에 이르는 一聯의 作品은 단순히 30年代 女給의 生態를 보여주려는데 머물지 않고 30年代 知識人의 失業과 同一線上에 올려 놓고 知識人의 좌절의 모습과 그들 自身의 生計

22) 俞鎮午: 痴情, p. 61.

<10>嶺慶語文學(第5輯)

유지를 위해 就職을 함으로써 빛어지는 또 하나의 問題點을 分明하게 提示해 주었다고 하겠다.

「나비」(1939)도 따지고 보면 「어떤 夫妻」와 별로 따를 바 없는 作品이다. 그런데 兩作品의 差異를 말한다면 「어떤 夫妻」가 처음부터 끝까지 家庭的이고 生活的인데 比하여 「나비」는 享樂의 一面을 若干 強하게 突き고 있다는 點이다.

「나비」에서 主人公 <프로라>(최명순)는 김대진과 어엿이 結婚한 有夫女이다. 그런데 男便 <김대진>은 專門學校 出身으로 就職을 하지 못하고 아내 <프로라>가 술집에 나감으로 生計를 유지해 간다. 그렇다고 그들 夫婦間에 強한 愛情으로 연결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結婚生活은 별다른 <유리불>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男便 <김대진>이 自己의 無能에 對해 自認하므로 아내의 職業에 별다른 苦惱를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내인 <프로라>도 역시 많은 男子와 사귀고 있지만 언제나 <최종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男便>이라는 點에서 <프로라>의 行動은 아내의 立場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結果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선 <최명순>이 <프로라>라는 이름으로 改名을 하고 술집에 나간 動機부터 살펴보면

<프로라>가 지금 있는 가게로 처음 나올 때에도 형식상으로는 <프로라>가 동무의 권청으로 스스로 은직인 것같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따져보면 남편이 그렇게 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프로라> 자신도 이런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 <프로라>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된 사람으로서 도리어 그런 것을 말려야 할 것인데 그는 <프로라>의 말을 듣고도 못들은 체 「글쎄 그래? 그럼 그것두 좋지」 하는 식으로 우물쭈물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²³⁾

이처럼 <프로라>가 술집에 就職하게 된 것은 <프로라>의 好氣心도 크게 作用한 것이기도 하지만 男便의 失業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男便의 우유부단한 態度가 問題될 수도 있지만 生計의 方途를 갖지 못하고 있는 當代 知識人으로서 아내의 就職이 유일한 方便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不透明한 態度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作品 「나비」는 tone에 있어서 翁鎭午의 다른 作品과는 약간 異質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이다. 사실 「나비」의 主人公 <프로라>는 단순하다 못해

23) 翁鎭午: 나비, p. 69.

오이리 白麻美를 지닌 女人이다. 이를테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영터리 畫家<이종식>이 自己의 모습을 스케취한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프로라〉는 단번에 감탄했다. 어쩌면 그렇게 잘 그렸을까. 그림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나 〈프로라〉는 학교시대에 그림에 취미를 가졌었고 광고 〈포스타〉 도안에는 제법 자신도 있던 처지라 예술적인 작품일수록 결코 〈포텔〉과 똑 같지는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좀 짝짝이가 되고 코가 좀 베풀어졌다 해도 그것은 그저 그렇거니 하는 것이다.²²⁾

이렇게 하여 〈프로라〉는 그의 純眞性으로 쉽사리 男子와 친해져서, 영터리 畫家<이종식>을 알게 되고, 영터리 會社員(실은 은행수의인) 〈오금동〉, 부랑자이며, 동료 女給인 〈케이코〉의 愛人인 〈최형태〉, 광산업을 한다는 〈안상렬〉을 알게 되지만 그저 그분, 한 아내로서 醜絶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男便에 對한 愛情이나 혹은 아내로서의 婦德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술한 男子들, 特別 앞에서 列擧한 人物들이 直接으로 혹은 間接으로 그녀를 유혹하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음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나비」도 30年代 知識人의 悲劇的 삶과 그것을 일식나마 解決하기 爲해 女給으로 生活戰線에 뛰어들 女人의 生活相을 보여 주는데 充實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비」의 마지막 結末부분에서 〈프로라〉가 自己 집 앞에서 〈오금동〉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남편은 짐짓 못 본 체하고 지나간다. 그런데 作品의 結末은 戲畫的으로 處理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집문간을 들어설 때에는 〈프로라〉는 보통 때의 〈프로라〉였다. 그는 우선 부엌으로 가서 맑은 빙수를 떠 양치질을 할가락할가락했다. 이번이야 말로 비록 무슨 무언은 없었다 해도 〈김대진〉에게 정말 미안한 것 같아서 몸 숙, 마음 숙까지 셋이 널 듯이 야단스배 하는 것이다. 방문 앞에 와서도 〈프로라〉는 잠깐 머뭇거렸다. 죄를 지은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가만가만 머뭇이를 연다. 그러나 이것은 또 찰일일까. 질투의 불길에 바작바작 몸을 태우며 천둥 밑에 도사리고 앉았어야 할 〈김대진〉은 심분밖에 안되는 그 동안에 잠이 들었을 리도 없는데 벌써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는 것이다. 안심했다느니 보라도 차라리 무슨 까닭으로 양치질을 할 것인지 너무도 신경끄는 듯이 〈프로라〉의 입가에는 빙그레 웃음이 떠 올랐다.²³⁾

22) 兪鎮午：나비, p. 71.

23) 兪鎮午：나비, pp. 88~89.

이와 같이 <프로라>의 行動이나 男便 <김대진>의 行動은 단순히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보다는 눈물을 要求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失職이 가져온 人間의 나약함을 目睹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狀況은 若干 다르지만 金裕貞의 <산골 나그네>나 <소나기>, <솔> 그리고 <안해>의 世界와 同軌의 作品이라 할 수 있다. 特別히 <소나기>에서는 <아내>의 賣淫을 방조하다 못해 強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男便과 의종게 지내기 위해 기꺼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玄鎭健의 <貞操와 藥價>(1939)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男便의 병을 고치기 위해 醫院에게 몸을, 그것도 병든 男便과 단칸방에서 몸몰파는 것이다. 역시 남편은 아내에게 醫員에게 십십지 않도록 하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은 生活의 궁핍은 人間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이런 現象은 30年代 社會的 不條理에 根據하고 있음을 暗示해 준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나비」에 있어서 <김대진>의 行爲는 當代 知識人의 虛弱한 肖像畫의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IV. 結 言

以上에서 筆者는 1930年代 小說에 나타나는 女給에 關하여 살펴 본 셈이다. 이를 要約 整理하면

첫째, 玄民의 小說에서 보여지는 女給은 30年代 以前의 作品에 나타나는 女給과는 그 性格이 判異한 것으로서 知識人 男便을 둔 <아내>의 身分이란 點이다. 그렇기 때문에 30年代 女給은 철저히 生活의이고, 또한 전전한 思考를 지닌 女人像이라 하겠다. 실로 官能的 世界로 흐르기 쉬운 女給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러한 官能的 世界나 享樂的이고 現實과 유리된 世界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作家精神이 當代現實을 觀念的으로 認識하지 않고 있었음을 證明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30年代 女給文學은 단순히 女給의 世界를 보여주는데 머물러 않고 30年代 知識人의 職業難과 生活苦를 보여 줌으로써 知識人의 좌절과, 虛弱한 知識人의 肖像畫를 통하여 日帝植民政策의 모순점을 提示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30年代의 市井小說乃至 身邊體驗小說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作品, 이를테면 앞에서 論議된 兪鎭午의 作品系列도 단순히 身邊 이야기가 아니라 當代 社會問題와 관련지워 認識함으로써 새로운 視角에서 이들 市井小說系列의 再檢討가 要請된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겠다.